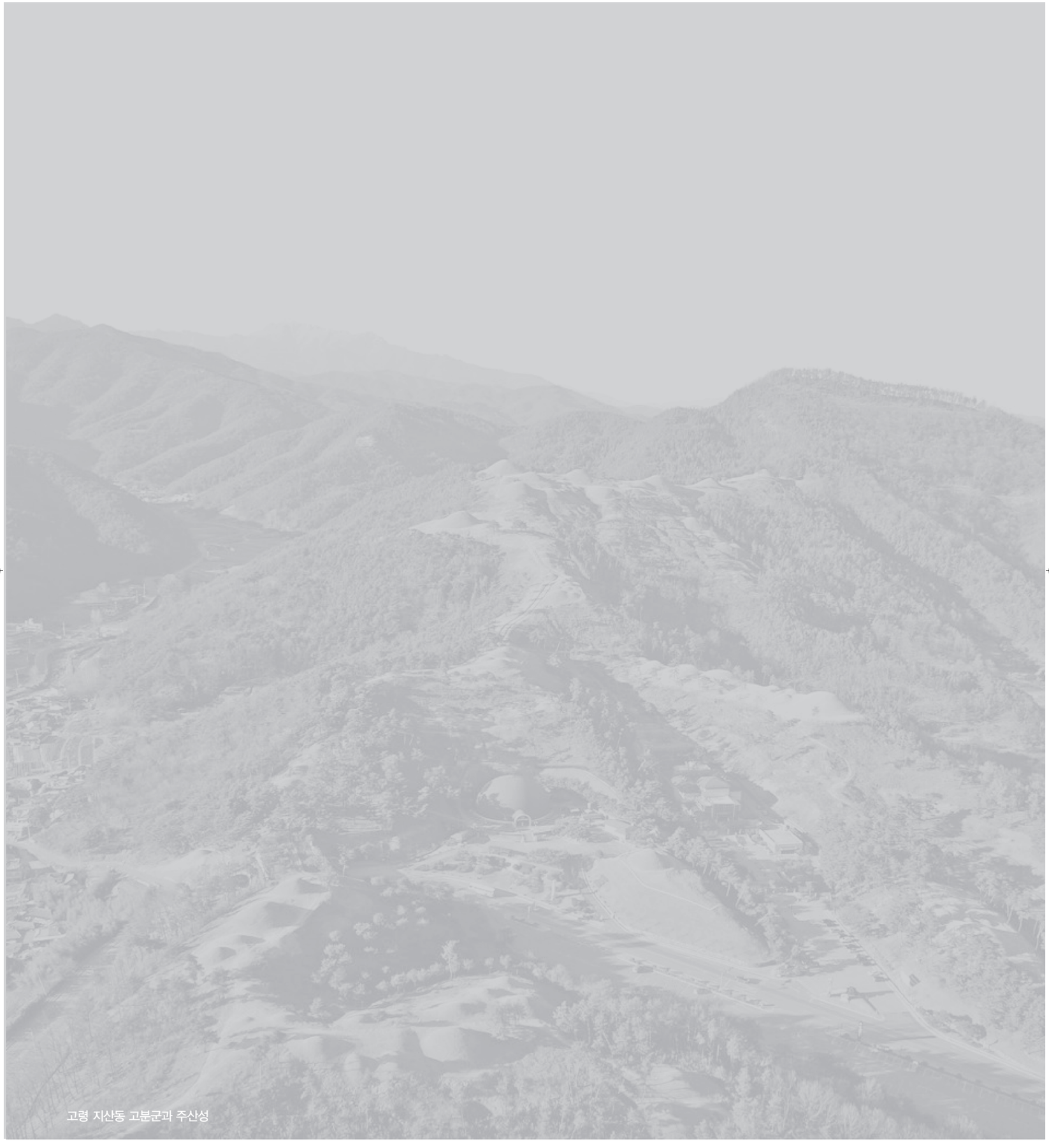
2 -6 _Layout 1 2018. 5. 23. 10:53 Page 160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주산성

2 -6 _Layout 1 2018. 5. 23. 10:53 Page 161



06

고구려 고분과 비교해 본 가야 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

Vol. 2

Ⅰ. 머리말

Ⅱ. 세계유산으로서 고구려 고분의 특징과 가치
1. 고구려 고분의 특징
2.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
3. 고구려 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

Ⅲ. 고구려와 가야고분의 비교
1. 가야 고분의 특징
2. 가야와 고구려와 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 비교

Ⅳ. 맺음말

2 -6 _Layout 1 2018. 5. 23. 10:53 Page 162

고구려 고분과 비교해 본 가야 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

Ⅰ. 머리말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에서 1972년도에 제정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근거하여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문화재를 말한다. 세계사적으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유네스코에서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복합유산' 등 3가지로 나누어 세계유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1)]

세계유산은 역사, 예술, 미술, 학문적 또는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념물과 건축물군, 건조물군, 유적지 등으로 분류되지만, 분류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의 대개는 세계사적 가치가 있고, 보존, 관리되어야 할 기념물이나 건축물 또는 고고유적지이다. 세계유산의 보유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유적이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되므로, 해당 국가나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유적을 관리,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유적지는 11개소에 달하며, 그 중에는 신라와 백제 고분이 포함되어있고,[2)] 고구려 고분은 중국과 북한의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되었다. 삼국의 고분이 모두 세계유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 의미가 크다. 실제 우리 역사에서 삼국시대는 고분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크고 작은 많은 고분들이 축조되었고 다른 유적에 비해 보존 상황이 좋은 편이다. 특히 높고 큰 분구를 가진 고총은 규모와 그 구조적 복잡함, 고분에 부장된 다종, 다양한 유물로 인하여 해당 사회의 최상위 신분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 중에는 왕릉이 포함되어있다고 이해된다. 때문에 삼국의 고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고분 축조에 반영된 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기술, 관념과 신앙 등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가 세계사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평가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여러 측면이 무덤에 투영된 것은 삼국의 일원이었던 가야의 고분도 마찬가지이다. 무령왕릉처럼 묘지석이 주인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고구려의 태왕릉처럼 〈原太王陵安如山固如岳〉 명문 벽돌이 태왕릉임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지만, 가야의 고분들 중에는 입지 조건과 규모와 구조, 부장품 등에서 월등한 왕릉으로

비정할 만한 고총이 낙동강 이서 지역 곳곳에 군집을 이루고 있다. 특히 4세기대의 김해 대성동 고분군, 5세기대의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하여 영남의 낙동강 이서지역 곳곳에 포진된 고총고분군은 삼국시대 가야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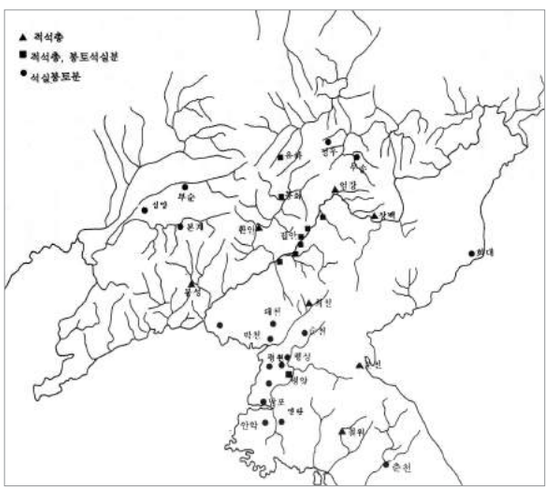
따라서 중국과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 백제의 송산리와 능산리 고분 그리고 경주 대릉원 내의 신라 고분이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듯이 삼국시대의 일원으로서 영남 각지에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가야고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세계사적 가치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04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의 특징과 세계유산적 가치를 살피고 이를 가야고분과 비교함으로서 가야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세계유산으로서 고구려 고분의 특징과 가치

1. 고구려 고분의 특징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부여에서 남하한 주몽이 졸본지역을 중심으로 혼강과 압록강유역 주민 집단을 아우르면서 세운 국가로,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 국가를 이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 북부 및 중부 지방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유적, 유물로, 고구려의 유적 · 유물은 고구려가 건국 후부터 주변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여서 넓은 영역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잘 보여준다(그림 1). 특히 태왕릉, 장군총을 위시한 거대한 적석총과 풍부한 내용의 유려하고도 화려한 필치와 채색의 벽화분으로 대표되는 고구려의 고분문화는 고구려의 형성과 성장은 물론 고구려가 강력한 군사강국일 뿐 아니라 높은 수준 높은 문화국가로 발전하였음을 웅변한다.

700여 년 간의 고구려 역사와 함께 한 고분은 분구의 축조재료와 매장방식에 따라 여러 모습을 띤다. 분구는 축조재료에 따라 돌로 분구를 축조한 적석총과 흙으로 분구를 축조한 봉토분으로 대별되며, 분구의 평면형태는 방형을 띠어서 백제나 신라, 가야의 분구 형태와 차이가 있다. 매장주체부는 매장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1인이 안치되고 1회로 매장이 마감되는 수혈식 구조와 2인 이상이 시간을 달리하면서 동실에 합장되는 횡혈식 구조로 나뉜다. 수혈식 구조는 주로 목관과 목곽, 목실이었고, 횡혈식 구조는 석실이 주가 되며 벽돌과 돌이 함께 사용된 예도 있다.



〈그림 1〉 고구려 고분 분포도 (강현숙, 2013, p.180 그림 4-6)

분구 축조재료와 매장방식은 서로 대응되어서 적석총에서는 수혈식과 횡혈식 구조가 함께 하나 봉토분에서는 횡혈식 구조와 대응되며, 장의예술로서 묘실벽화는 횡혈식 구조의 무덤에서만 확인된다. 이처럼 분구축조재료, 매장방식 그리고 장의예술로 특징지을 수 있는 고구려 고분에서 공통되는 특징의 하나는 의도적 입지 선택이다.

1) 의도적 입지 선정

고구려 고분은 구릉의 경사면이나 강변 대지 또는 평탄화된 구릉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무덤의 규모, 묘제에 따라 정형성을 띤다. 먼저, 묘지 선택에서의 의도성이다. 무리를 이루는 고분들은 입지선정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압록강을 경계로 이남과 이북의 지역적인 차이도 관찰된다. 가령, 압록강 지류인 독로강, 자성강 일대에서는 강변 대지에는 주로 적석총이, 강가에서 내륙의 구릉으로 들어가면서 차츰 봉토분이 증가하여 시간에 따른 묘지 선택의 변화를 보여준다. 반면, 집안 통구 분지에서는 구릉 사면에 적석총이 자리하며, 평지로 내려오면서 적석총보다는 봉토분이 늘어나고 있다. 즉, 압록강을 경계로 지형에 따른 묘지 선택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중 · 소형분에서 두드러진다.

다음으로는 무리를 이루는 고분들은 열상배치를 하거나 분구의 한 변을 서로 잇댄 집단묘 형태를 하고 있다. 수기에서 십수기씩 무리를 이루는 무덤들은 종으로 또는 횡으로 열 지어 분포한다. 구릉의 능선을 따라 종으로 열 지어 내려오거나 강의 흐름을 따라 횡으로 열 지어 분포한다. 열상배치된 고분 중에는 수기의 무덤의 분구 한 변이 서로 연접된 연접묘가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연접묘도 주로 중 · 소형의 적석총에 두드러진다. 한편, 대형분이나 초대형분은 조망권이 확보된 구릉의 정상부 또는 평탄화된 구릉의 말단부나 평지에 단독으로 자리하거나, 대형분끼리 군집을 이루기도 한다. 집안 통구 분지의 초대형 적석총들은 단독으로 자리하거나 대형분끼리 횡으로 열상배치하며, 대형의 봉토분도 평탄화된 대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횡으로 열상배치한다. 이에 반해 평양일대에서는 초대형분끼리 군집을 이루는데, 커다란 무덤을 중심으로 주위에 중 · 대형분이 열상배치하거나 대형분끼리 삼각상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아울러 적석총과 봉토분의 중심 분포지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시간에 따른 묘제의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한편, 확대된 영역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적석총으로 이루어진 고분은 가장 좁은 공간에서 확인되지만, 봉토분으로 이루어진 군집은 가장 넓은 범위에서 관찰되어서 고구려의 영역확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왕릉급의 초대형분들은 집안과 평양일대에 집중 분포하여서 두 지역이 고구려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하여 준다.

2) 구조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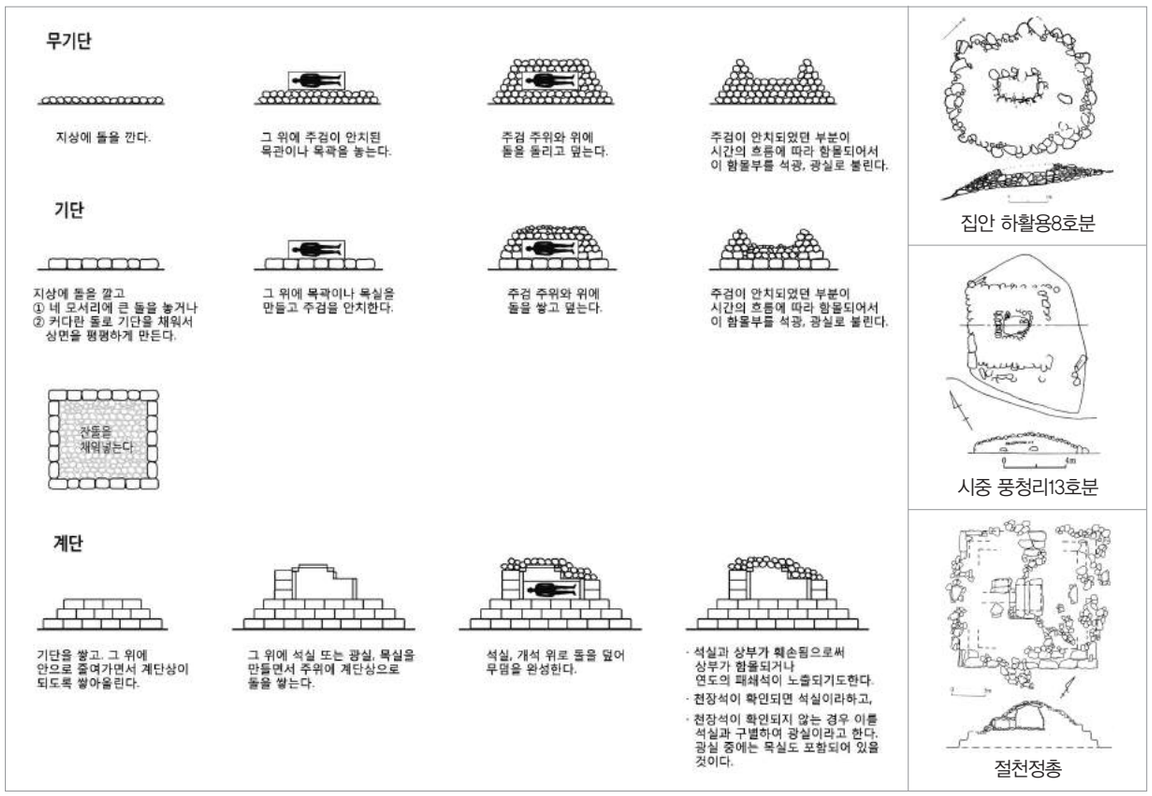
(1) 적석총

돌을 쌓아 분구를 만든 적석총은 지상에 돌을 깔고 그 위에 주검은 안치한 후 다시 돌을 덮어 매장을 마감하는 무덤으로 북한에서는 돌무지무덤, 돌각담 무덤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상의 분구 중에 주검이 놓이며, 돌을 이용하여 무덤을 축조하였다는 점에서 매장주체부가 지하 깊숙이 있는 중국이나 한반도의 무덤과는 다르다.

2 -6 _Layout 1 2018. 5. 23. 10:53 Page 165

돌을 무덤 축재로 사용하였고, 지상에 주검이 안치된다는 점에서 적석총은 천산산맥(千山山脈) 이동지역에서부터 집안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는 청동기시대 돌무덤에서 기원하여 기원전 3-2세기경 적석총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압록강 중하류역에 집중 분포하는 적석총은 고구려 원주민의 묘제이면서 중국과 구별되는 고구려 고유묘제라고 할 수 있다.

적석총은 무덤 축조 재료와 축조 방식을 기준으로 여러 형식으로 분류되지만, 대개는 무기단적석총, 기단적석총, 계단적석총으로 분류하거나, 매장방식과 매장주체부 구조를 기준으로 석광(곽)적석총, 광실적석총, 석실적석총으로 분류한다.[3] 무기단적석총은 냇돌이나 할석 등 자연 상태의 돌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주검을 안치한 목관이나 목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식되어 분구 중앙에 함몰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무기단석광적석총으로 부르지만 실제는 무기단 목관이나 목곽적석총일 것이다. 기단적석총은 냇돌이나 할석을 이용하며 기단 축조에 부분 가공한 돌을 사용하기도 한다. 돌로 방형을 기단을 돌리고 기단 내부에 돌을 채워서 상면을 형성한 후 주검을 안치한 후 돌을 덮은 무덤으로 주검은 목곽 외에도 보다 큰 규모의 목실에 안치되기도 하며, 드물지만 돌로 축조한 석실에 안치되기도 한다. 매장주체부에 따라 기단목곽 또는 기단목실, 기단석실적석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계단적석총은 기단적석총과 같은 방식으로 기단을 축조하고 그 위에 다시 내축하면서 기단을 층층이 쌓아서 계단상의 분형을 만든 것이다. 매장주체부는 목실이나 석실로 계단목실적석총 또는 계단석실적석총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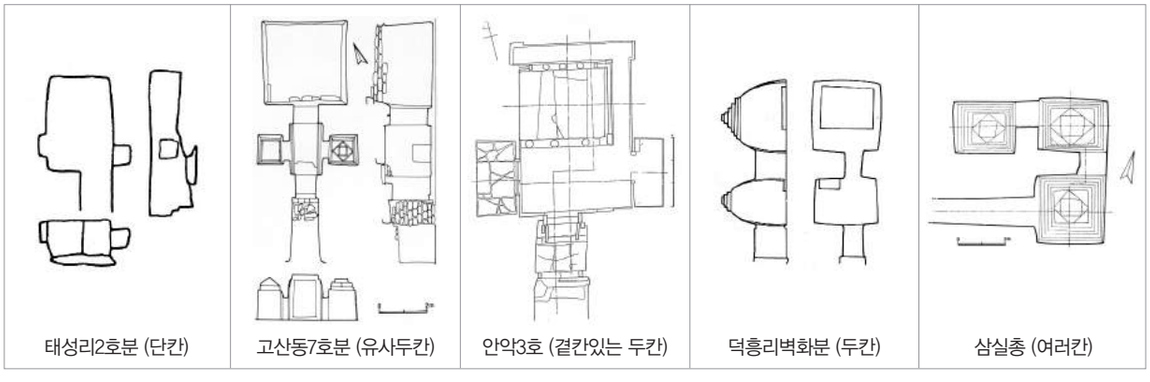
〈그림 2〉 고구려 적석총 축조방식과 구조

여러 모습으로 존재하는 적석총은 시간에 따라 무기단에서 기단, 계단적석총으로, 매장방식은 수혈식 장법에서 횡혈식 장법로 변화하여서 매장부는 석광(곽)에서 광실, 석실로 변화한다. 무기단석광적석총은 기원전후가 되면서 기단석광(곽)적석총으로 분구 형태의 분화가 일어난다. 3세기후반이 되면 계단식 분구가 더해지면서 무기단, 기단, 계단상으로 외형상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횡혈식 장법을 받아들여 석광(곽), 광실이 병존하며, 천장까지 잘 쌓은 횡혈식 장법의 석실구조는 3세기말경에 등장하여 4세기경이 되면 계단석실적석총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특히 4, 5세기의 초대형 계단석실적석총 중에는 적석부에서 기와와 와당이 출토되기도 하여 분구 정상에 구조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초대형 계단석실적석총이 최상위 신분의 적석총 형식이다.

(2) 봉토분과 벽화분

봉토분은 지상이나 반지하에 매장주체부를 만들고 흙을 덮어서 분구를 만든 무덤이다. 매장주체부는 횡혈식 구조로, 돌로 축조한 석실이 중심이나 평양이나 안악일대에서의 일부 무덤은 벽돌로 축조하거나 돌과 벽돌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봉토분은 제한된 범위에 분포하는 적석총에 비해 넓은 분포범위를 갖고 있어서 봉토분의 분포지를 통해서 고구려의 확대된 영역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평양일대의 중심 묘제가 봉토분이어서 봉토분이 적석총에 이어 등장한 고구려 후기 묘제임을 시사한다. 분구 재료에서 차이로 적석총과 봉토분이 서로 단절적이라고 생각하여 각각의 기원을 구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봉토분구 중에는 경신리1호분이나 (전)동명왕릉처럼 기단적석총과 같은 방식으로 돌로 기단을 만든 후 흙은 덮어 만든 기단봉토분이 있어서 적석총에서 봉토분으로 변화가 단절적이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고구려 봉토분의 분구는 방대형으로, 축조 재료는 다르지만 방형 평면의 분구를 가졌다는 점은 적석총과 공통된다. 횡혈식 매장주체부는 현실과 연도로 이루어진 단칸구조와 현실과 연도 사이에 전실이 있기도 하며, 전실과 현실에 측감이나 측실이 달리기도 하며, 현실 여러 개가 통로로 연결되기도 하는 등 복잡한 구조도 있다. 고구려 봉토분의 방형 평면이나 여러 칸의 복잡한 구조는 단칸구조의 원형 평면의 반구형 봉토분이 중심이 되는 신라나 백제, 가야와는 다르다.



〈그림 3〉 고구려 봉토석실벽화분의 여러 구조

고구려의 봉토분을 대표하는 것은 묘실 내부에 그림을 그린 벽화분으로, 봉토분 연구는 벽화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근래 조사에서 계단적석총 중에서도 벽화가 검출된 바 있어서 적석총 주민이 봉토분구와 묘실 벽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묘실 내부의 벽과 천장 전체에 그림을 그려 장식한 벽화분의 분구는 대형에 해당되며, 특히 복잡한 구조와 묘실의 천장가구가 중, 소형 무덤과는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묘실은 현실과 연도로 이루어진 단칸구조와 전실과 현실로 이루어진 두칸구조, 그리고 여기에 곁칸이 달리기도 하고, 세 칸이 통로로 연결되거나 네 개의 관실이 병렬로 연결되는 등 복잡한 양상이다(그림 3). 천장은 궁륭상이나 여러 가지 방식의 고임식 방법을 사용하여 묘실 내부의 공간이 확대되었다. 벽화분의 구조는 시간에 따라 복잡한 구조에서 단순, 간단한 구조로 변화하며, 여러 가지 방식의 천장구조에서 평행삼각고임 천장으로 변화하여서 6세기가 되면 방형 현실의 중앙연도, 평행고임식 천장의 단칸 구조 무덤이 중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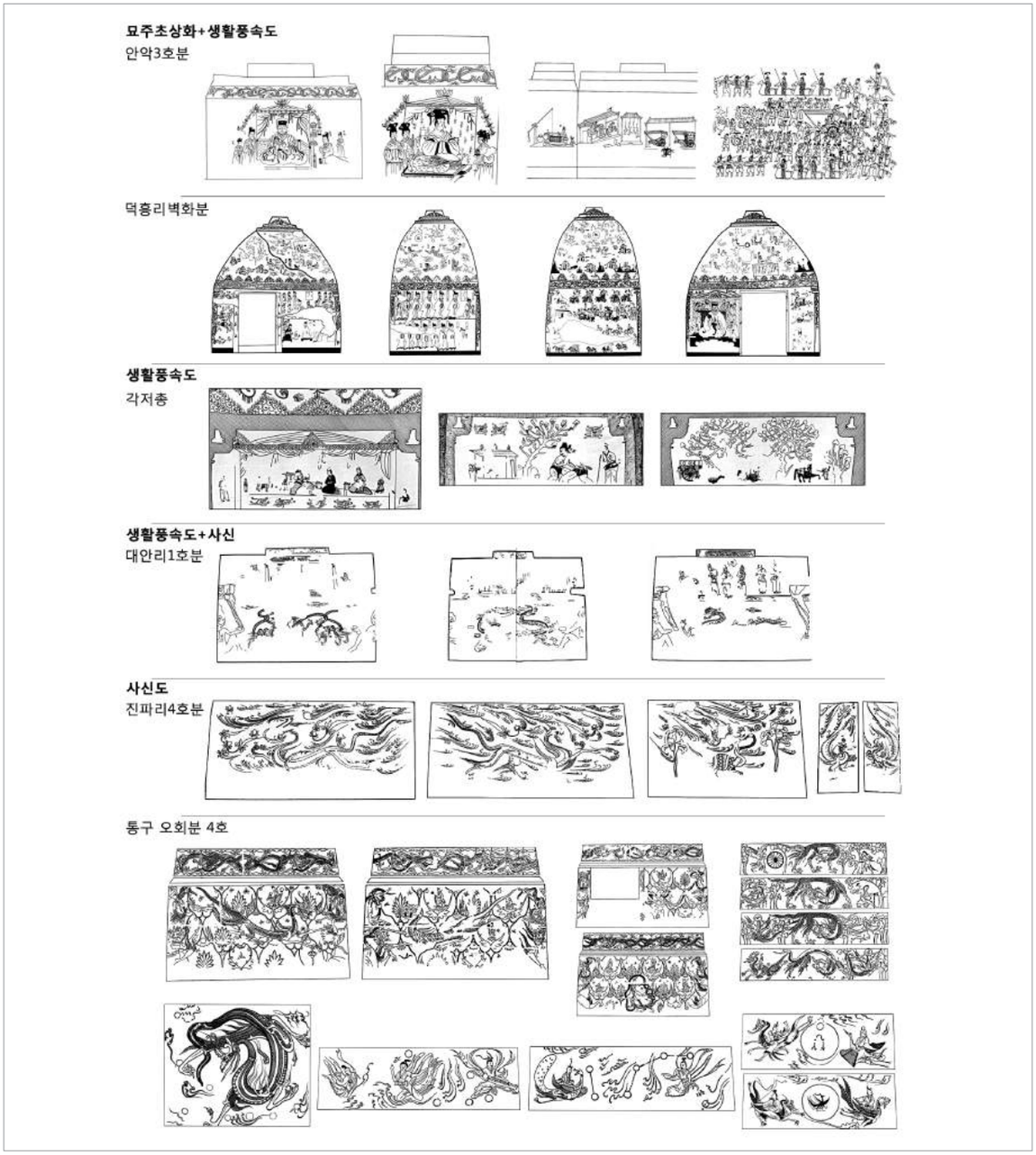
3) 장의예술

고대 사회에서 장의 예술의 하나가 무덤 내부에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장의 예술은 횡혈식 구조의 석실이나 전실 내부에 그림을 그려 장식한 묘실 벽화는 그림을 새긴 선각화와 붓으로 색을 칠한 채색벽화가 있다. 선각화는 평양 금옥리 벽화분 한 기만이 보고되었고, 보고된 나머지는 모두 그림을 그리고 채색한 채색벽화로 현재 110여기가 확인되었다.

그림은 벽면과 천장 등 묘실 내부 전체에 그렸다. 묘실 내부 벽과 천장에 백회를 발라 그림을 그릴 면을 정리한 후 그림을 그리거나, 편평하게 잘 다듬은 돌 벽면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렸다. 백회를 바른 후 그림을 그린 경우 현실과 전실 네 모서리에 기둥을 그리고 천장과 벽의 경계에는 들보를 형상하여 무덤 내부를 마치 목조가옥처럼 하였고, 벽면에는 현실 생활을 천장부에는 천상의 하늘세계를 그려 넣어 현실과 하늘세계를 구분하였다(그림 4).

벽면의 그림으로는 인물초상화와 생활풍속와 장식도안, 사신도 등이 있다. 인물 초상화에는 무덤의 주인공으로 생각되는 남자 주인공 혹은 부부를 표현하였다. 남자 주인공은 바로 앉은 자세로 표현되기도 하고 손님을 맞고 음식을 먹는 등 생활 속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부부가 함께 표현된 경우 남자와 여자가 단독으로 별개의 화면을 구성하기도 하며, 나란히 앉은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생활풍속에는 집안 내 생활과 정사를 보는 장면, 출행 및 행렬, 수렵 등 사회, 정치적 지위를 나타내는 생활의 여러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장식 도안으로는 연꽃이나 王자, 동심원 무늬, 거북등무늬 등이 있다. 장식도안은 단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생활 장면의 배경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사신은 여러 신들과 함께 천장부에 표현되다가 차츰 벽면으로 내려오면서 생활풍속 장면과 벽면을 나누어 위치하다가 생활풍속 관련 내용이 사라지고 벽면이 중심제재가 된다.

천장에는 해와 달, 별과 구름 및 상상 속의 상서로운 동물과 선인 외에도 견우와 직녀 등의 설화 등의 천상세계와 예불도, 불상, 도교신 등 여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신은 천장의 구성 요소로 자리하다가 차츰 벽면의 중심 제재가 된다.



〈그림 4〉 고구려 고분벽화의 여러 제재들 (강현숙, 2013, p.236 그림 4-21)

벽화분은 처음에는 벽면에는 인물 초상화와 생활풍속의 여러 내용을, 천장부에는 하늘의 여러 세계를 묘사하다가 차츰 벽면에 사신과 생활풍속이 함께 묘사되다가 사신이 벽면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 이어 6세기대에 들어서면서 사신도가 벽화의 중심이 되고, 인물초상화와 생활풍속 관련 내용을 사라지게 된다. 한편 장식무늬 도안은 생활풍속도와 함께 표현되기도 하고, 장식도안만으로 벽면을 장식하기도 한다. 장식무늬 벽화분은 고구려 벽화분 특징의 하나로, 주로 중국 집안, 환인 일대에 분포한다.

2 -6 _Layout 1 2018. 5. 23. 10:53 Page 169

2.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

졸본에 도읍을 정했던 고구려는 국내에서, 다시 평양으로 두 차례 천도를 한다. 고구려 고분이 중국과 북한 영역 내에 자리하다보니,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고분이 공동으로 등재되었다. 중국에서는 졸본과 국내 왕도가 현재 중국 경내에 자리하여서 환인현의 오녀산성과 집안시의 국내성과 환도산성을 포함한 통구 분지의 적석총과 벽화분들을 '고구려 도성과 왕릉, 귀족묘'로 등재시켰고, 북한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한 일대의 벽화분과 고분군을 '고구려 고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시켰다.

1) 중국의 고구려 왕릉과 귀족묘

중국의 고구려 고분은 왕릉과 귀족묘 두 가지 이름으로 등재되었다. 왕릉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은 집안시 통구분지의 만 여기에 이르는 고분 가운데 한변 길이 30m를 상회하는 초대형 적석총을 왕릉으로 선정하여 등재신청하였다. 왕릉으로 선정한 초대형 적석총은 마선구2378호분, 마선구626호분, 마선구2100호분, 천추총, 서대총, 칠성산871호분, 칠성산211호분, 임강총, 우산하2110호분, 우산하992호분, 태왕릉, 장군총과 장군총 배총 등 12기와 1기의 배총이다.[4] 그리고 태왕릉의 주인공을 광개토왕으로 비정하여 태왕릉과 함께 광개토왕릉비를 포함시켰다. 집안 고구려 왕릉 보고서에 의하면[5] 왕릉으로 선정한 근거로 커다란 규모와 넓은 조망권을 확보한 우월한 입지의 단독무덤, 그리고 적석부의 기와나 와당의 출토, 배장묘(陪葬墓), 제대 및 능원과 부속 건물 등의 시설 등을 제시하였다(표 1). 그러나 왕릉으로 비정된 12기의 적석총이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니며, 왕릉으로 선정되지 않은 무덤 중에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것이 있어서 왕릉후보군으로 비정되기도 하였다.

고구려 왕릉으로 선정되어 세계유산에 등록된 적석총의 분구 축조방식은 계장식과 계단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계장식은 기단을 형성하지 않는 무기단식으로 중앙에서부터 밖으로 가면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무덤이 확대된 것으로 계단식 축조기술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덤의 거대화를 의도한 축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계단식은 잘 가공된 석재로 층단을 이뤄 가면서 축조한 것으로 계단식은 축조에 사용된 돌의 치석 기술에 따라 보존 상태가 달라서, 부분 가공한 석재를 사용한 경우 계단상의 분구가 잘 유지되지 못한 반면, 전면 가공한 석재를 사용한 경우 계단상 분구가 잘 유지된 것도 있다. 따라서 치석과 축조기술의 시간에 따른 발전 정도로 볼 때 초대형적석총은 계장식에서 계단식으로 시간에 따른 왕릉의 변화를 보여준다. 계단상의 초대형적석총은 고구려 왕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묘제는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고구려를 구별시켜주는 고구려의 상징물이자 고구려 왕을 기념하는 기념물로서 기능하였을 것이다.

동시에 능원과 배장묘 그리고 제대 등의 시설은 동시기 중국의 능제와는 다른 것으로, 고구려 고유의 능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고구려 왕릉으로 선정된 초대형 규모의 적석총은 고구려만의 고유한 매장 건축물인 동시에 동시기 동아시아에서는 드문 높은 건축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성, 환도산성과 함께 역사 속의 고구려 문명을 실증해주는 사례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 등재신청 자료에 의하면 귀족묘를 선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2 -6 _Layout 1 2018. 5. 23. 10:53 Page 170

【표 1】 중국 길림성 집안시의 세계유산 – 고구려 왕릉

고분명	입 지	형 식	규 모(길이×너비×높이)	주요시설	비 고
麻線溝2378	산 정상부의 낭떠러지 변	前圓後方形 階壇積石墓	46×30×4m	陪葬墓	시설 누락 규모 차이
山城下墉廠36	산기슭의 급경사지	前圓後方形 階壇積石墓	28–37.7×4.5m(主壇)	陪葬墓	신청 누락
麻線溝626	산기슭의 경사지	前圓後方形 階壇積石墓	41–48×?m(主壇)	祭臺	시설 누락 규모 차이
七星山871	산기슭의 급경사지	階壇積石墓	40–48×3.6–9.7m	祭臺, 北壇(北門)	시설 누락 규모 차이
臨江墓	산 정상부의 낭떠러지 변	大型階段 石槨積石墓	76×71×10m	祭臺	시설 누락 규모 차이
禹山下2110	평지	長方形階段 石槨積石墓	66.5×45×3.5–5.5m	祭臺 鋪石層(서)	시설 누락 규모 차이
七星山211	산기슭 아래 대지	大型階段 石槨積石墓	66×55×6.39–14.52m	祭臺	시설 누락 미천왕릉
西大墓	산기슭의 경사지	大型階段 石槨積石墓	53.5–62.5×11m	祭臺 北壇(北門)	시설 누락 규모 차이
禹山下992	완만한 산기슭 대지	大型階段 石槨積石墓	36–38×6.5m	祭臺	시설 누락 규모 차이
麻線溝2100	완만한 경사지	方形階段 石槨積石墓	29.6–33×5.6–6.0m	南壇(南門) 鋪石層(서,북, 남)	시설 누락 규모 차이
千秋塚	경사지 위의 평탄면	大型階段 石室積石墓	63×63×11m	祭臺,南壇(南門) 鋪石層(서) 건물지(서남)	시설 누락 규모 차이
太王陵	경사지 위의 평탄면	大型階段 石室積石墓	62×62×14m	南壇(南門) 祭臺, 건물지(동북) 陪葬墓(남변) 鋪石層(4면)	시설 누락 규모 차이 광개토왕릉
將軍塚	산기슭 경사지 위의 평탄면	大型階段 石室積石墓	30.15–31.25×13.07m	陪葬墓 2기 祭臺, 鋪石層(4면) 건물지(서남)	1호배총왕릉 시설 누락 규모 차이

귀족묘는 대형의 계단석실적석총과 석실봉토분 두 형식으로 그 중에 다수를 점하는 것은 석실 내부를 그림으로 장식한 벽화분이다(표 2). 계단적석총으로는 산성하고분구역의 형총과 제총, 절천정총, 우산하고분구역의 우산하3319호분과 우산하2112호분으로 이 적석총들은 가공된 커다란 돌로 계단을 축조한 초대형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우산하2112호분은 태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연뢰문 와당이 출토되었고, 우산하3319호분은 계단전실적석총으로 묘실 내부에 벽화 흔적이 있는 벽화분이기도 하다. 벽화는 생활풍속계열로 추정되며 무덤 옆에 있는 선각상으로 미루어 왕릉 후보군으로 비정되기도 하였던 무덤이다.[6] 절천정총은 중국에서 행한 재조사에서 생활풍속도계열로 추정되는 채색 벽화편이 확인되었다.

봉토분으로는 우산하고분구역의 각저총, 무용총, 마조총(통구 12호분), 산연화총, 그리고 오회분 1·2·3·4·5호분과 사신총, 사회분 1·2·3·4호분 등과 하해방고분구역의 환문총과 모두루총, 산성하 고분구역의 왕자묘, 귀갑총과 그리고 장천 1·2·4호분이 등재되었다. 모두루총은 전실 북벽에 묘지명이 있는 두칸구조 무덤으로 벽화는 검출되지 않았다. 오회분 1호·2호·3호분과 사회분 1호·2호·3호·4호분은 초대형분으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벽화의 유무는 알 수 없다. 벽화는 생활풍속도 계열과 장신도안, 그리고 사신도벽화분이다. 각저총, 무용총, 마조총은 생활풍속의 여러 장면을 그린 벽화분이며, 왕자묘와 귀갑총, 환문총은 장식도안을 주 내용으로 하며, 장천1호와 2호, 4호분은 장식도안과 생활풍속도가 결합된 벽화분이다.

【표 2】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중국의 고구려 귀족묘

고분명	무덤 구조, 특징	
각저총	봉토석실벽화, 두칸구조 생활풍속도	우산하457
무용총	봉토석실벽화, 두칸구조 생활풍속도	우산하458
마조총	봉토석실벽화, 동분이혈합장, 두칸구조, 생활풍속도	(통구12호분)
왕자무덤	봉토석실벽화, 두칸구조, 장식도(왕자)+생활풍속	산성하332
환문총	봉토석실벽화, 단칸구조, 장식도	하해방33호
모두루총	봉토석실분, 두칸구조, 묘지명(79줄 850자)	하해방1호
산연화총	봉토석실벽화, 두칸구조, 장식도(연꽃)	우산하1986호
장천1호	봉토석실벽화, 두칸구조, 생활풍속도	
장천2호	봉토석실벽화, 두칸구조+곁칸, 장식+생활풍속	
장천4호	봉토석실벽화, 동분이혈합장, 두칸구조, 장식+생활풍속	
우산하3319	계단적석전석혼축분, 유사두칸구조, 벽화(내용미상), 기년명 와당/ 355년 한족 관리의 무덤으로 추정	
오회분1호	봉토석실벽화 / 추정, 미발굴	우산하2101호
오회분2호	봉토석실 /추정, 미발굴	우산하2102호
오회분3호	봉토석실, 벽화 추정, 미발굴	우산하2103호
오회분4호	봉토석실벽화, 단칸구조, 사신도	우산하2104호
오회분5호	봉토석실벽화, 단칸구조, 사신도	우산하2105호
사신총	봉토석실벽화, 단칸구조, 사신도	우산하2113호
사회분1호	봉토석실 추정 벽화	우산하2106호
사회분2호	봉토석실 / 추정 미발굴	우산하2107호
사회분3호	봉토석실 / 추정 미발굴	우산하2108호
우산하2112	계단광실적석총 왕릉, 연화문 와당	
절천정총	계단석실적석총, 벽화	산성하1298호
형총	계단석실적석총	산성하635호
제총	게단석실적석총	산성하636호
귀갑총	석실봉토, 벽화, 장식도(귀갑문) – 완전 파괴	산성하1204호

2) 북한의 고구려 고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북한의 '고구려 고분'은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한 일대에 분포하는 고분군과 벽화분으로,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평양시, 평안남도 대동, 남포, 그리고 황해남도의 안악일대 네 개의 지역에 걸쳐 있다(표 3).

평양시에서는 진파리 일대 고분군, 호남리 사신총과 주변의 고분들이 등재되었다. 진파리 고분군은 진파리와 설매리 일대에 분포하는 십 여기의 석실봉토분과 사신도 벽화분으로 이루어진 고분군으로[7],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전)동명왕릉이다. 동명왕릉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진파리 10호분으로 편호되었던 기단봉토분으로, 북한에서 재조사 함으로써 곁칸이 있는 구조이며, 벽화가 그려졌던 벽화분임이 밝혀졌다. 벽화는 연꽃 중심의 장식도 벽화이다. 북한에서는 진파리 10호분과 이 배후에 있는 3기의 무덤을 동명왕릉과 그 배장묘로 파악하고 새로 복원하였다.

【표 3】 북한의 세계유산 – 고구려 고분

유적명	조사 연도	유적 내용	출전
전동명왕릉고분군	1916	기단봉토석실벽화분(사신도)	朝鮮總督府, 1917,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38, 昭和38年度古蹟調査報告
토포리남총	1916	봉토석실분	
호남리사신총	1916	기단봉토석실벽화분(사신도)	
금사총	1916	봉토석실분	
토포리1–7호	1936	봉토석실분	朝鮮總督府, 1937, 昭和11度古蹟調査報告
안악3호분	1949	봉토석실벽화분(묵서명), 여러칸구조 묘주초상, 생활풍속도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58, 안악제3호분발굴보고
안악1, 2호분	1958	봉토석실벽화분 생활풍속도, 단칸구조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60, 안악제1, 2호분발굴보고
약수리고분	1958–1960	봉토석실벽화분, 생활풍속도, 두칸구조	약수리벽화고분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3
진파리 동명왕릉	1971	기단봉토석실벽화분 (당시 벽화 미확인)	전동명왕릉부근벽화고분, 고고학자료집3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수산리고분	1972	봉토석실벽화분, 생활풍속도, 단칸구조	김종혁, 수산리고구려벽화무덤발굴중간보고, 고고학자료집4
강서 삼묘	1909–1910	우현리3묘(강서대묘), 중묘, 소묘)	朝鮮總督府, 1915, 1916 朝鮮古蹟圖譜1–3
	1911	우현리3묘(강서대묘), 중묘, 소묘)	朝鮮總督府, 1913, 大正三年度古蹟調査報告
	1973	봉토석실벽화분, 사신도(대묘, 중묘) 봉토석실분(소묘)	자료실
전동명왕릉고분군 진파리고분군	1942	봉토석실분	1986, 朝鮮古代遺跡の遍歷
	1976	동명왕릉 기단봉토석실벽화분(연화문) 진파리1호, 9호 봉토석실분(사신도)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 유적
덕흥리 벽화분	1977	봉토석실벽화분, 묘지명, 두칸구조 묘주초상화+생활풍속도	1981, 덕흥리벽화무덤
덕화리1, 2호분	1977	봉토석실벽화분, 생활풍속도+사신도, 단칸구조	허명, 1977, 덕화리에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 역사과학1977–2
덕화리3호분	1991	봉토석실벽화분, 단칸구조(동분이혈합장), 생활풍속도	정세앙, 1991, 덕화리3호무덤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1991–1

호남리 사신총과 호남리 북쪽의 광대산 자락에 분포하는 고분 가운데 가장 서쪽에 토포리대총과 주위의 토포리 1 · 2 · 3호분, 토포리남총 그리고 금사총(금실총)을 등록 신청하였다.[8] 이 중 호남리 사신총과 토포리 대총은 큰 분구를 가진 기단봉토분으로, 석실은 평행삼각고임 천정을 한 방형 현실의 중앙연도 구조이다. 그 중 호남리사신총은 벽면 내부를 잘 다듬은 후 돌 위에 직접 사신을 그린 사신도 벽화분이다.

평안남도 대동지역에서는 덕화리 1 · 2 · 3호분 세 기의 봉토분이 등재되었다. 모두 단칸구조이다. 덕화리 1호분은 장방형에 가까운 방형 평면 현실과 중앙연도로 이루어진 무덤으로 천장은 평행고임 1단 위에 6단의 팔각고임을 하였다. 2호분은 방형 평면 현실과 중앙연도로 이루어진 석실로 천장은 1호분과 마찬가지로 평행고임 한단 위에 6단의 팔각고임을 하였다. 덕화리 1호분과 2호분은 벽면에 생활풍속과 사신이 결합된 벽화분으로, 벽면에 백회를 잘 바른 후 네 벽면에 기둥과 들보를 표현하고 천장에는 하늘 세계를 그리고, 벽면은 상하로 나누어 위에는 생활풍속을, 아래에는 사신을 그려 넣어 생활풍속도에서 사신도로 과도기 모습을 보여준다. 덕화리 3호분은 1호분, 2호분과는 달리 벽화가 없는 석실봉토분으로, 동일 봉토분구 내에 동서방향으로 나란하게 석실 2기가 벽을 공유하고 있는 동분이혈합장무덤이다. 따라서 묘실 각각은 장방형 평면을 하며, 별도의 연도가 없이 입구만 있는 횡구식 구조이다. 판석으로 축조한 석실 내부에는 백회로 벽과 천장을 정리하였다.

남포시 일대는 대동강 하류역 주변과 예전에 용강군이었던 지역을 포함하며, 서북한 일대에서 벽화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강서 대묘, 중묘, 소묘 세 무덤과 덕흥리벽화분, 약수리벽화분, 수산리벽화분, 용강대총, 쌍영총 등이 목록에 등재되었다. 강서의 세 무덤은 모두 잘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석실로, 석실은 방형현실의 중앙연도, 평행삼각고임 천정구조이다. 소묘를 제외한 대묘와 중묘는 잘 다듬은 현실 벽면에 직접 사신을 그린 사신도 벽화분이다. 덕흥리 벽화분은 묵서로 인해 무덤의 주인공과 축조연대를 알 수 있는 무덤으로, 현실과 전실, 연도로 이루어진 두칸구조이다. 현실과 전실, 연도 전면에 그림을 그렸다. 벽면에는 남자 묘주초상화와 생활의 여러 장면을 천장에는 해, 달, 별과 함께 각종의 상서로운 동물과 견우와 직녀 설화가 표현되어있다. 약수리 벽화분도 덕흥리벽화분과 같은 현실과 전실, 연도로 이루어진 두칸구조의 생활풍속도 벽화분이다. 현실과 전실의 벽면에 생활풍속의 여러 장면을, 천장에는 해, 달, 별, 구름과 묘주 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넣어서 상상 속의 사후세계를 표현하였다. 수산리 벽화분은 단칸구조의 생활풍속도 벽화분으로, 벽면에 묘사된 여성의 복식이 일본 고송총 벽화분과 유사하여 일본 벽화분에 고구려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하게 한다. 용강대총은 현실과 전실로 이루어진 두칸구조의 생활풍속도 벽화분으로, 전실의 천장을 셋으로 구획하여 천장가구를 하여 고구려 고분 축조의 높은 기술을 보여준다. 쌍영총도 현실과 전실로 이루어진 두칸구조의 생활풍속도 벽화분으로 전실과 현실 사이 통로에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그려 넣은 팔각기둥이 있어서 쌍영총으로 명명된 무덤이다.

황해남도의 안악일대에서는 안악 1 · 2 · 3호분이 신청되었다. 안악 일대는 황해남도에서 가장 벽화분의 밀도가 높은 곳으로, 안악3호분은 1949년도 북한에 의해서 발굴된 최초의 벽화분으로 무덤의 규모와 구조, 풍부한 벽화내용으로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벽화분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무덤이다. 안악1호분과 2호분은 현실과 연도로 이루어진 단칸구조이나, 안악3호분은 현실과 현실을 돌아가는 회랑, 전실, 전실 좌우의 측실, 연실 등으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구조이며, 현실과 전실은 기둥으로 공간이 구획되었다는 점에서 고구려에서는 예외적인 구조이다. 특히 남자와 여자의 단독 초상화와 함께 대규모 행렬도 등 생활풍속의 여러 장면이 표현된 생활풍속도 벽화분으로, 서쪽 측실 입구 인물 위의 묵서로 인해 동수의 무덤 또는 고국원왕의 무덤으로 비정되고 있다.

3) 고구려 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

고구려 고분은 고구려 사람들이 축조하고 매장된 당대의 역사물이며, 원상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다는 점에서 유적이 가지는 진정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앞서 일별한 바와 같이 중국과 북한이 각각 고구려 고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데 있어서 고구려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공동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북한에서 고구려 고분이 세계유산 등재 조건의 4가지 기준, 즉 1) 고구려 고분의 벽화는 고구려 문화의 대표적 예술품으로, 고분의 건축은 독창적인 축조기술을 증명하며, 2) 고구려 문화의 특수한 매장풍습은 일본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문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3) 고구려 고분들은 고구려의 문화 매장풍습, 생활풍속과 신앙의 중요한 증거이자 4) 고구려 고분군은 매장양식의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부합된다고 보았다.

중국에서는 1) 무덤의 내부에 그려진 벽화와 무덤의 건축구조는 인간의 뛰어난 창의성이 발휘된 걸작으로 2) 예술적 숙련과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 고분벽화도 다른 문화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며 3) 고대 고구려 왕국의 도성과 고분은 사라진 고구려 문명을 탁월하게 입증해주는 증거로서 4) 고구려 무덤은 적석총에서 봉토분으로 전개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뛰어난 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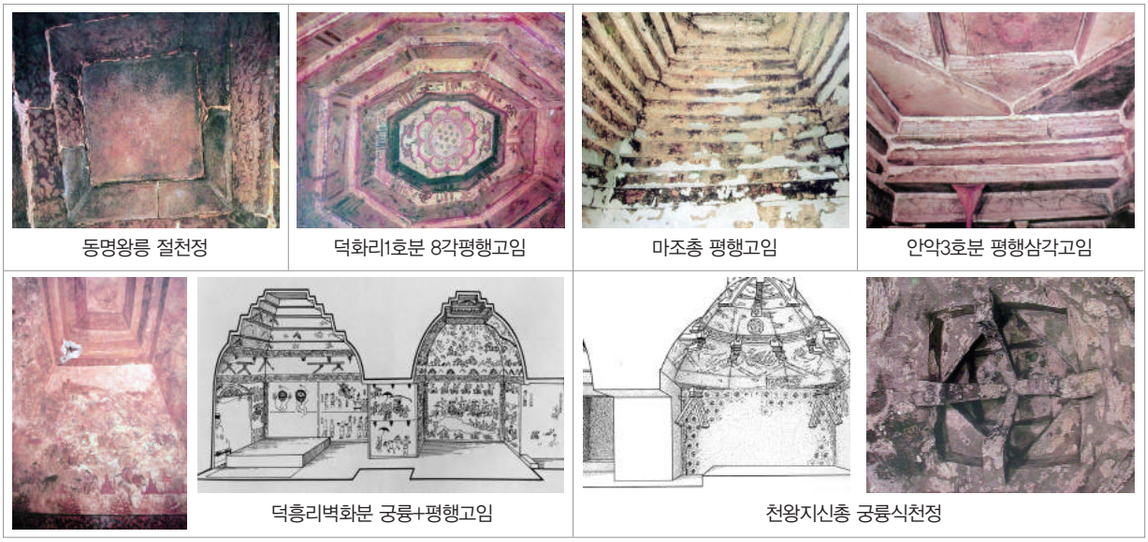
고구려 고분의 세계유산 등재 조건은 북한과 중국이 공통으로 주장한 바대로 고분 축조의 독창적 기술, 벽화고분의 예술성 그리고 고분에 반영된 고구려 매장풍습과 생활풍속, 신앙 등은 고구려 문명을 입증해주는 증거로 요약할 수 있다.

적석총은 주검이 안치되고 돌을 이용하여 무덤을 봉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 여타 지역의 묘제와는 다르며, 압록강 중하류역을 중심으로 제한된 분포범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고구려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독창적인 묘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석총은 치석기술과 축조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무기단에서 기단, 계단식으로 기술발전을 보여주며, 기술 발전의 방향은 무덤을 높고, 크게 쌓으려는 의도와 관련되며, 이는 왕권국가로서 고구려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왕릉으로 비정된 초대형의 적석총들은 고구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념물이면서, 뛰어난 석재 가공술과 축조술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봉토분과 벽화분은 건축술과 예술성 두 측면에서 그 가치를 살필 수 있다. 높은 축조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천장가구이다. 거대한 봉토분구로 인한 외압으로부터 높은 천장을 가진 석실이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디어 오늘날까지 벽화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잘 쌓은 석실에 있으며 특히 높게 잘 쌓은 천장가구에 있다. 천장가구는 돌을 조금씩 안으로 들여쌓아서 천정의 단면이 반원형이 되는 궁륭상구조와 사다리꼴이 되도록 쌓은 절천정(사아천정) 그리고 장대석을 고여 쌓는 고임식이 있다. 고임식은 다시 고임 방법에 따라 평행고임, 팔각고임, 그리고 모서리에서 돌을 내어 고이는 삼각고임 방법으로 나뉘며, 두 가지 이상의 천장가구방법이 사용됨으로써 천장을 높게 하였고, 석실 내부 공간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렇게 높아진 천장부에는 상서로운 하늘세계를 표현하고, 이는 벽면의 생활풍속장면과 함께 계세관념을 구조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고구려가 높은 건축술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예술성은 벽화분의 장의예술에서 잘 드러난다. 장의예술로서 고분벽화는 벽과 천장을 나누어, 석실 내 모서리에 기둥을 그림으로써 목조가옥의 내부처럼 표현하고, 들보를 그림으로써 벽과 천장을 구획하여 현실세계와 하늘세계를 표현하였다. 벽면에 생활의 여러 장면을 묘사하거나 사신도를 그리고, 천장에는 해와 달, 별, 구름과 상서로운 동물과 선인들을 그려 넣었다. 사람들의 생활모습, 집, 의복, 무기, 음악, 춤, 종교 등을 표현한 벽화는 현실의 생활이 사후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계세관념을 표현된 것으로 4, 5세기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6세기 이후가 되면 잘 다듬은 벽면에 사신을 그려 넣었는데, 유려한 필치와 화려한 색채로 생동감있게 표현된 사신은 당시의 높은 예술 수준을 보여준다.

따라서 벽화분은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축기술과 장의예술 그리고 고대 사회의 매장관습과 사후관념이 응집된 고구려의 살아있는 역사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생활의 여러 장면은 중국과 서역 및 북방왕조와의 관계를, 천문도와 사신도는 일본 벽화분에 영향을 주기도 하여서 벽화분은 동북아시아에서 주변 나라들과 교류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그림 5〉 고구려 벽화분의 여러 천장가구

III. 고구려와 가야고분의 비교

1. 가야 고분의 특징

가야는 변한의 여러 소국들이 성장하면서 삼국의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지 못한 영남지역 낙동강 서쪽에 자리하였던 여러 정치체를 총칭하는 말이다. 가야를 구성하는 정치체들은 고총을 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면서 성장하였으나 단일의 국가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대가야의 토기 양식 분포로 미루어 대가야만이 넓은 범위를 가진 독자적인 국가단계로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가야가 신라에 통합됨으로써 가야도 역사에서 사라졌다.

여러 정치체들이 대등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낙동강 이서지역 각지에 조성된 고분군이다.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함안 말산리, 도항리에 분포하는 말이산고분군,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고분군, 그리고 합천 옥전고분군, 소가야의 중심지로 비정하고 있는 고성 송학동고분군 등 외에도 크고 작은 고분군들이 영남의 서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각지의 고분군 가운데 금관가야의 중심 분묘군으로 이해되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처럼 변한 소국으로부터 지속적이고 계기적인 발전을 보여주며, 함안 말이산이나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고총은 5세기를 경과하면서 정치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지상에 높고 큰 분구를 남기고 있지는 않지만, 4세기대의 높은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고분군이다. 목관묘에서부터 목곽묘로 지속적으로 발전한 대형의 목곽묘는 금관가야의 맹주로서의 위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성동의 대형 목곽묘는 지하식으로, 길이에 비해 폭이 넓어진 장방형 평면을 띄며 별도의 부곽을 가진 이혈 주부곽식 목곽묘도 있어서 경주의 세장방형 목곽묘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다. 대성동의 29호분은 구릉에 단독으로 자리한 순장이 확인된 대형무덤이며, 13호분은 주 피장자가 안치된 목곽(주곽)과 부장품이 매납된 부곽이 따로 설치된 대형무덤으로 금관가야의 위상을 잘 드러낸다. 이러한 대형 목곽묘에서는 다량의 부장품이 부장되는데, 부장품 가운데 왜계, 북방계, 중국계 유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함께 순장의 흔적이 확인되어서 대성동 고분군은 수장의 무덤군으로서 금관가야의 대내외적 위상을 잘 드러낸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기존에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으로 불렸던 고분군으로, 말이산의 주능선과 가지 능선에 고총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여 말이산 고분군으로 부르고 있다. 특히 반구형 봉분을 가진 고총이 가지 능선 정선부에 자리하고 있어서 아라가야 지배층의 무덤군으로 이해되고 있다. 매장주체부는 목곽묘에서부터 수혈식 석곽묘, 횡혈식 석실묘 등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목곽묘를 대표하는 마갑총은 목관 좌우로 말갑옷을 잘 펴서 깔은 것으로, 고구려 벽화분에 자주 표현되는 개마무사와 관련지어 볼 때 장송관념의 표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말이산고분군을 대표하는 것으로 석곽은 폭에 비해 길이가 길어진 세장방형 평면이며 벽 상부에 들보시설 또는 감실로 불리는 방형의 작은 홈이 특징이며, 암각화고분(도항리34호분)은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있었던 석재를 개석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세장방형 석곽에는 착장형 위세품의 부장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갑옷과 투구, 마구 등 중장기병과 관련된 유물의 부장과 순장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아라가야 수장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함안양식으로 불리는 화염형 투창이 있는 고배가 아라가야의 고고학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주산 능선을 따라 고총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일찍부터 대가야의 왕묘군으로 이해되어왔던 고분군으로, 고분에서 출토된 고배와 장경호 등은 고령양식 또는 대가야 양식 토기로 5세기 후엽이 되면 낙동강 이서지역은 물론 전북 일대까지 확산되어서 대가야의 세력권을 보여준다. 무덤은 반구형의 봉토분으로 분구는 분할하거나 판축, 흙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기획 축조하였다는 점에서 무덤 축조의 기획성이 돋보인다. 매장주체부는 목곽과 석곽, 석실이 있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세장방형 평면의 석곽이다. 특히 왕묘급의 무덤은 동일 분구 내에 별도의 순장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산동 32, 34호분에서는 순장곽이 하나이지만 지산동44호분에서는 동일 분구 내에 순장곽으로 보이는 32기의 소형 석곽이 정연하게 배치되었고, 45호분에서도 11기의 순장곽이 배치되어 있어서 대가야 왕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한편, 고령 고아동 고분군은 10여기의 봉토분으로 이루어진 고분군으로 그 중에 한 기가 벽화분이다. 고아동 벽화분은 석실봉토분으로 석실은 장방형 현실의 중앙연도 평면이며, 현실 천장은 터널형이다. 천장에 연꽃이 그려져 있으며 무덤 구조가 백제 공주 송산리6호분과 비교되며, 연꽃의 표현도 고구려보다는 백제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합천 옥전 고분군은 분구를 가진 분구가 잔존하지 않는 무덤에서부터 거대한 봉토분에 이르기까지 100여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고분군이다. 매장주체부는 목곽, 석곽, 석실로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2 -6 _Layout 1 2018. 5. 23. 10:53 Page 177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묘제의 변화를 보여준다. 거대 봉토분구가 잔존하지 않지만, 옥전23호분은 한변 길이 7.2m, 폭 4.6m에 달하는 대형의 목곽묘로, 금동제 관모, 금동장 투구, 금동으로 장식한 마구류와 철제 말 투구 등이 부장되어서 상당한 정치적 위상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거대한 봉토분구를 가진 무덤의 대다수는 석곽이다. 석곽은 낙동강 이서 지역의 여타 고총과 마찬가지로 세장방형 평면을 띄며, 다종다양한 유물이 부장되었다. 부장품 가운데 금공장신구와 장식대도는 백제, 대가야와의 관련을, 로만글라스와 출자형 금동관, 편원어미형 행엽은 신라와의 관련을 보여주는 유물이어서 시간에 따라 백제, 대가야, 신라와 교류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은 함안 말이산, 고령 지산동, 합천 옥전 고분군처럼 대규모의 군집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송학동 1호분은 연접된 두 기 사이에 또 하나의 무덤이 연결되어 세 기의 무덤이 연접되어 있는 봉토분이다. 봉토분구 내에 매장주체부가 위치한 분묘일체형의 분구묘라는 점이 특징이며, 매장주체부는 석곽과 석실이다. 가장 먼저 조성된 A호분은 주곽을 중심으로 주위에 9기형 소형 석곽이 배치된 다곽식 무덤이며, 세장방형 석곽이라는 점에서 가야의 석곽과 특징을 공유한다. B호분과 C호분은 장방형 현실,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를 가진 석실을 매장주체부로 하며, B호 석실 내부에 붉은 색 칠을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며, C호 석실은 궁륭상식으로 천장을 가구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다. 송학동 고분은 규모로 미루어 소가야의 왕묘급 무덤으로 비정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낙동강 이서 지역 각지에 분산하여 분포하고 있는 가야 고총의 구조적 특정을 종합하자면, 먼저 분구는 지상에 원형 평면의 반구형 봉토분구를 갖고 있으며 봉토분구는 분할하고 판축법이나 토낭법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장방형 평면의 목곽, 세장방형 평면의 석곽, 장방형 평면의 현실을 가진 석실 등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어서 가야 각 정치체의 성쇠와 함께 한다. 특히 수혈식 구조에서 횡혈식 구조로의 변화는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동아시아 장묘제의 변화와 함께 했음을 시사한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석곽은 세장방형 평면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는 벽 상부에 방형의 홈을 갖고 있으며, 고령 지산동에서는 판석조 석곽 내에 석관으로 추정되는 2중곽이 있어 해당 지역의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동일 분구 내에 1기 또는 수기에서 수십기에 달하는 순장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여준다.

2. 가야와 고구려 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 비교

고구려 고분이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분이 가지는 역사성과 함께 높은 축조 기술을 가진 건축물이라는 점, 벽화의 예술성과 함께 지금은 사라진 고대 왕국으로서 700여년의 고구려의 생활, 풍습, 관념과 종교를 잘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가야 고분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확인된다(표 4).

가야 고분은 1인 1회로 매장을 마감하는 수혈식의 목곽에서 석곽으로, 그리고 동실 내에 추가합장이 가능한 횡혈식 장법의 석실로 변화하나, 지상에 드러난 분구는 원형을 기본으로 하였음이 각 지역의 고총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리고 각 지역의 고총은 부장 토기와 세부적인 축조방식에서 차이를 보여 해당 정치체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고구려와 일부 특징을 공유한다. 1인 1회의 단인장에서 추가합장으로 매장방식의 변화는 고구려에서도 확인된다. 고구려 왕릉으로 비정되었던 계장식 적석총인 1인 1회의 단인장 방식이며, 보다 발전된 계단식은 추가합장이 가능한 횡혈식으로 돌로 축조한 횡혈식 석실이다. 주검을 안치하는 시설이나 부장품을 매납 양상도 비슷하다. 고구려에서 주검은 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착장한 상태로 출토되지는 않았으나 매장주체부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종합해 보면, 금, 은, 금동으로 만든 장신구, 장식대도를 비롯한 무기와 갑주, 마구류가 주요 부장품이다. 이러한 부장양상은 가야 고분에서도 공통된다. 물론, 고구려의 경우 구조적으로 부장품이 남아있기 어렵기 때문에 잔존하는 부장품이 적어서 부장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매장 프로세스, 주검처리와 안치, 매장방식의 변화, 부장품과 장속 등에서 고구려와 가야 고분에서 보이는 유사성은 양 국이 죽음을 보는 관념이 같았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죽음을 바라보는 관념과 매장행위에서의 관찰되는 고구려와 가야의 유사성은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삼국의 일원으로서 가야가 주검을 처리하는 정보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공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와 가야 고분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분구의 형태가 그 단적인 예이다. 고구려는 적석총이나 봉토분 공히 방형 평면을 기본으로 하는 방대형분인 반면, 가야는 원형분구를 기존으로 하여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분구 형태는 차이를 보인다. 고총이 해당 정치체 지배층의 상징이자 기념물임을 감안해 볼 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분구의 형태의 차이는 고구려와 가야가 별개의 독자적인 국가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 고구려와 가야 고분의 비교

	고구려	가야
입지	평지나 구릉의 평탄면, 단독, 열상배치	구릉의 중심 능선, 대형분끼리 군을 형성
분구	적석 → 봉토, 방분계	봉토, 원분계
매장방식	수혈식 → 횡혈식	수혈식 → 횡혈식
매장시설	목관, 목곽(석곽) → 목실 → 석실	목관, 목곽 → 석곽 → 석실
묘실벽화	생활풍속도, 장식도, 사신도	연꽃무늬(고령 고아동 벽화분)
부장품	장신구, 무기, 마구, 갑주, 철제 이기, 자기, 옥기, 토기, 금속용기 등	장신구, 무기, 마구, 갑주, 철제 이기, 토기, 금속용기 등
장속	1인 1회 단인장 → 합장, 후장 → 박장(석실)	1인1회 단인장 → 합장, 후장 → 박장(석실), 순장
사후관	계세관념(부장품과 묘실벽화, 석실구조)	계세관념(부장품)

결국 죽음을 보는 관념은 공유했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에서는 고구려와 가야가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순장과 묘실 벽화가 그러하다. 순장은 신분에 따른 계층차가 발생한 이래 자신의 권력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권력자가 사후에도 현세의 권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리던 수하의 사람들을 죽여 무덤에 묻

은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 강력한 권력을 표시하는 물적 증거의 하나이다. 고구려에서는 동천왕이 죽자 많은 사람이 따라 죽으려고 해서 중천왕이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듯이 타의에 의한 사람 순장이 성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고구려에서는 무덤에 그림을 그려 넣음으로써 현세가 이어지기를 바랐다. 반면, 가야에서는 순장을 함으로써 그러한 관념을 표현하였고, 그의 표현에서 각 정치체마다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삼국시대의 고분은 주검 안치라는 1차 목적 외에 죽음을 바라보는 관념을 구조나 묘실벽화, 순장 등으로 표현하였다. 순장이나 묘실벽화 등을 포함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무덤의 구조는 고구려와 가야가 서로 달랐지만, 주검을 처리하고 안치하는 방식 그리고 부장품의 매납 등 죽음을 바라보는 관념은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에서 공통되는 죽음을 바라보는 관념이나 주검의 처리와 매장방식은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가야가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념을 공유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국이나 북한의 고구려 고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던 조건에 비추어 가야고분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이 5가지 사항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고분 축조에 소용된 높은 건축기술이며, 그러한 기술이 발휘된 가야 정치체의 기념물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각 지역의 고분은 구조와 부장품, 매장관습에서 상사, 상이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정치체 내의 교류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죽음을 바라보는 매장 관습의 산물이며, 넷째는 묘제의 변천이 가야의 성쇠와 함께 한 산물이며, 그리고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고총이 가지는 상징성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5】 고구려와 가야 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 비교

	북한의 벽화분	중국의 고구려 왕릉과 귀족묘	가야고분
1	고구려 벽화분은 고구려문화의 대표적 예술품들이다. 고분의 건축은 독창적인 축조기술을 증명한다.	무덤은 무덤 내부에 그려진 벽화와 무덤의 건축구조에 있어서 인간의 뛰어난 창의성이 발휘된 걸작임을 보여준다.	다양한 기법으로 거대한 분구의 축조는 높은 건축 기술을 증명한다.
2	고구려 문화의 특수한 매장풍습은 일본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의 문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술적 숙련과 독특한 양신을 보여주는 고분벽화도 다른 문화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가야 고분의 여러 부장품들과 벽화는 해당 정치체의 정체성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3	고구려 고분들은 고구려의 문화, 매장풍습, 생활풍속과 신앙의 중요한 증거이다.	고대 고구려 왕국의 도성과 고분은 사라진 고구려 문명을 탁월하게 입증해주는 증거물이다.	가야의 매장풍습과 죽음에 대한 관념을 보여준다.
4	고구려 고분군은 매장양식의 중요한 사례이다.	고구려 무덤은 고구려 무덤 건축이 적석총에서 봉토분으로 전개되어간 양상을 보여주는 뛰어난 예이다.	목곽에서 석곽, 석실로 전개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5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함으로써 고총이 가지는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2 -6 _Layout 1 2018. 5. 23. 10:53 Page 180

Ⅳ. 맺음말 – 가야 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 인간의 창조성으로 빚어진 걸작품을 대표해야 한다. 2) 세계 문화사적으로 건축, 기술, 장식예술, 도시계획, 조경 분야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인류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3) 현재 존재하거나 또는 소멸된 문화전통 또는 문명에 대한 독특하거나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4)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5) 문화 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정주지, 토지의 이용 또는 해양 이용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6)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이 기준 가운데 고구려고분은 기준 1), 2), 3), 4)에 해당되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가야 고분을 고구려 고분과 비교해 볼 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분구나 매장주체부 구조 등은 차이가 있지만, 고총을 축조하거나 다종, 다량의 부장품을 매납하는 등의 관념이나 시간에 따른 무덤의 구조적 변화와 매장 관념의 변화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여기에 더하여 가야고분에서는 계획적인 순장, 고분 입지 조건의 경관적 우수성은 고구려와 차별적인 가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고대사에서 삼국의 문화는 경쟁적으로 축조한 높고 큰 고총에서 잘 드러나고 있고, 삼국의 일원으로서 가야도 삼국에 버금가는 고총문화를 이루었다. 삶과 죽음 공간이 조화로운 탁월한 경관과 함께 거대한 고분의 규모와 그에 따른 축조 기술이 지금은 사라진 삼국의 한 일원이었던 가야의 성쇠를 함께 한 역사적 산물이다. 즉, 지하의 거대한 매장부와 유사 양식의 토기류를 포함하여 무덤에 매납된 다종, 다양한 유물들, 지상의 거대한 분구는 가야의 성쇠와 함께 하면서 정치체 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나아가 무기와 갑주, 마구, 장신구들은 정치체 간의 상호 영향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중국 북방과 고구려, 신라 그리고 중국 남조와 백제, 왜와의 교류를 보여 준다. 이는 가야의 고총문화가 낙동강 이서 지역에 국한된 지역문화가 아니라 동아시아를 종, 횡으로 연결시켜주는 보편성을 지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야 고분이 당대에 조성된 역사적 산물로서 그 진정성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가야 고분이 가지는 탁월한 보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고분문화의 흐름 속에서 낙동강 이서 지역의 탁월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족을 달자면, 고구려 고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인위적으로 복원한 고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위적으로 복원한 동명왕릉의 경우 그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원형을 잃고 매장주체부까지 파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서대총이나 칠성산211호분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에 원상의 훼손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때문에 지나친 분구의 복원이나 고분의 발굴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것을 아닐 것이다. 오히려 북한과 중국에서 보존된 또는 조사된 유적이 자연적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고구려 역사의 문화사적 중요성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축적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가야 고분의 조사나 인위적 정비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조사와 정비

2 -6 _Layout 1 2018. 5. 23. 10:53 Page 181

복원 그리고 연구가 균형을 잡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시간에 따른 가야 고분의 구조 뿐 아니라 매장풍습과 사후관념 등이 보편적이고도 탁월한 가치가 있음을 부각시킬 때 가야 고분의 세계문화사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강 현 숙

참고문헌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진인진.

경상북도,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경북지역 가야고분군과 세계유산.

경상남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김해함안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학술심포지움.

조윤재, 2012, 중국의 세계유산추진정책 사례 검토, 가야유적의 역사적 위상과 세계유산 가치연구.

허권, 2012, 세계유산 '고분'의 등재현황과 선정기준, 가야유적의 역사적 위상과 세계유산 가치연구.

조선유적유물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고구려편.

魏存成 等, 2004, 高句麗王城王陵及貴族墓葬, 中國文化遺産 2004夏.

http://www.unesco.or.kr/heritage/wh/index.asp.

1) http://heritage.unesco.or.kr/wh/wh_reg/(2017.09.05.).

2) 백제의 경우 웅진과 사비 시기의 도성과 함께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부여 능산리고분군의 고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신라의 경우 경주역사유적지구에 대릉원이 포함됨으로써 백제와 신라의 고분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3)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진인진 35쪽 표1-1.

4) 중국의 왕릉 보고서에서는 산성하 전창 36호분도 보고하였으나, 세계유산 등록 신청에서 이 고분을 빼고 장군총의 1호 배총을 포함시켰다.

5) 中國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縣博物館, 2005『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6) 우산하3319호분은 집안 고구려 왕릉보고서에서는 왕릉 후보군의 무덤으로 비정되었으나, 매장주체부를 벽돌로 축조하여서 중국계 귀족의 무덤으로 보기도 한다.

7) 진파리 일대 고분군은 일제 강점기 이래 편호되었던 것으로 북한에서 새로 편호하였는데, 북한측의 세계유산 등록 신청서에서는 북한에서 새로 편호한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번호를 사용하여서 현재 편호된 고분과 차이가 있다.

8) 금사총, 토포리남총과 토포리 1, 2, 3호분은 일제 강점기 이후 북한에서 재조사한 보고가 되어있지 않으며, ICOMOS조사단의 보고서에서도 이 고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서 이 고분들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